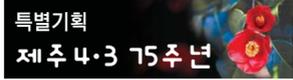


지역별 피해·미군정 역할 규명 등 과제 산적

작년 3월 19년 만에 정부 차원 추가 진상조사 본격 “정명” 비롯 올바른 4·3 역사 인식 계기돼야” 목소리



특별기획 제주 4·3 75주년

<3> 추가 진상조사 어떻게

정부 차원의 제주4·3사건 추가 진상조사가 지난해부터 이뤄지면서 4·3 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4·3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활동도 본격 이뤄지면서 4·3의 진실이 하나 둘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주4·3의 ‘정명’에 대한 논의의 진행은 아직 더디지만 한 실정으로 도민들이 염원하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정부 추가 진상조사 1년=정부 차원의 제주4·3사건 추가 진상조사는 2003년 정부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온 이후 19년 만에 지난해 3월 공식 시작됐다.

그동안 제주4·3진상조사는 2003년 정부 공식 보고서인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면서 본격화했다.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4·3 피해실태를 중심으로 4·3의 총괄적인 실상을 밝혀냈다.

다만 첫 진상조사 보고서인 만큼 피해실태 개요를 밝히는 데 무게를 뒀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행방 불명 실태, 마을별 피해실태, 진압 작전에 대한 지휘체계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부분 등이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7년 4·3특별법을 개정, 제주4·3평화재단이 추가 진상조사를 하도록 조정됐다. 재단은 2012년부터 조사단과 조사연구실을 꾸린 뒤 마을별 인적 피해실태 조사, 행방불명 희생자, 집단학살 사건 조사 등을 담아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구체적인 4·3 피해를 파악하고 집단학살의 실체를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부 차원의 법적인 보고서로 인정 받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그러던 중 추가 진상조사 계획은 지난해 초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회의에 회부돼 최종 의결되면서 정부 차원의 4·3 추가 진상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추가 진상조사는 내년까지 이뤄질 계획이다. 지역별 피해실태, 행방불명 피해실태, 4·3시기 미국·미군정의 역할, 무장대와 군·경 토벌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등 6가지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추가 진상조사 수행

경과 보고에서는 미국 현지 조사에서 1948년 6월, 미군이 제주농업학교 수용소를 방문해 촬영한 사진이 미 극동사령부와 워싱턴의 미 육군성 정보국에 보고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 올해까지는 진상 조사에 주력하고, 내년에는 보고서 작성을 통해 제주4·3 추가 진상조사의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4·3의 올바른 역사 ‘정명’ 필요성=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는 4·3의 올바른 이름을 짓는 정명 정립이 될 수 있다. 4·3의 진상규명은 현재진행형이며 미래 세대 전승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책임 등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 진실을 묻어둔 채 화해와 상생의 정신만을 앞세우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제주4·3 60주년에 공식적으로 제

기됐던 ‘4·3정명찾기 운동’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70년 넘게 제대로 된 이름조차 갖지 못한 제주4·3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름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4·3 정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도민 인식조사가 올해 상반기쯤 이뤄질 계획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여전히 정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제주4·3의 진상 조사를 통해 완전한 해결에 한 발짝 다가서고 향후에는 화해와 상생의 중요성에 대한 역사교육을 통해 제주4·3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



28일 4·3평화공원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각종 자료가 마련된 전시실을 둘러보고 있다.

강희만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 봉하마을 4월 1일 ‘제주4·3 추념행사’ 열린다

제주4·3 추념행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하마을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28일 제주4·3범국민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첫 추념행사는 (사)제주

4·3범국민위원회, 제주 노무현재단 등의 주최로 4월 1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이날 추념행사는 4·3 관련 기관과 작가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4·3

사과 이후 발간되거나 창작된 책을 직접 모욕에 헌정하는 행사와 참여 작가들과의 만남,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10월 31일 제주를 찾아 도민과 유족들에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위영석기자

2024학년도 수능 11월 16일 치른다

28일 시행기본계획 발표 EBS 연계율 제감도 예고

2024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오는 11월 16일 치러진다. 6월과 9월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이런 내용으로 2024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수능의 EBS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하되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6월과 9월에는 모의평가가 이뤄진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른다. 한국어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3월 말 2024학년도 수능 안내 자료 3종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사수도 생태계 교란 ‘집쥐’ 인위적 유입”

제주대 오홍식 교수 연구팀 유전적 증거 확보

“바닷새류의 번식 위협”

천연기념물인 제주 무인도 사수도의 생태를 교란하는 것으로 알려진 ‘집쥐’가 인위적으로 유입됐을 거라는 유전적 증거가 나왔다.

제주대학교 오홍식 교수(사범대학 생물교육전공) 연구팀은 제주에 있는 무인도에 외래생물 집쥐가 인위적으로 유입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유전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교수팀은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현장조사를 통해 샘플을 수집하고 미토콘드리아 DNA의 특정 유전자 서열을 분석해 사수도에 서식하는 쥐가 ‘시궁쥐’라는 것을 확인

했다. 이전까지 외형적인 모습으로 ‘집쥐’로 추정하던 것을 분자생태학적으로 집쥐 속(시궁쥐 속)의 ‘시궁쥐’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사람에게 의한 인위 유입의 단서를 확보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된 사수도는 바닷새류(흑부들기·슴새)의 최대 번식지이지만 집쥐 개체수가 늘면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됐다. 집쥐는 동지를 파헤치거나 알을 포식하는 등 바닷새류의 번식을 위협하는 종으로 알려져 왔다.

오 교수는 “섬에 사는 고유 생물 보호를 위해 침입종에 대해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4·3학살자 서북청년단 추념일 준동 용납 안돼”

민주노총 제주본부 성명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서북청년단이 예고한 4·3추념일 제주지역 집회에 대해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4·3 학살자 서북청년단의 준동을 결코 좌시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극우단체가 4월 3일 입도해 4·3평화공원 등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며 “이들은 4·3 추념식이 열리는 시간에 4·3 영령과 유족의 면전에서 ‘4·3을 진압한 서북청년회(단)의 깃발을 올려 기념하겠다’고 4·3영령과 유족의 가슴에 대못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도영기자

경 귀일중학교 개교 70주년 기념행사

귀일중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미래를 향한 도약의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기념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주 교육의 미래를 밝힐 전통으로 이어가는 본 행사에 참석하시어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3. 4. 7(금) ▶ 장소 : 귀일중학교 지암관(다목적강당)

식전행사
[09:20~10:00]

축하 공연

본 기념식
[10:00~11:00]

귀일명문가 인증서, 공로패, 감사패 전달

식후행사
[11:30]

기념품 증정 및 축하연

70th ANNIVERSARY

학교법인귀일학원이사장 고충홍
귀일중학교장 안영수